

태국어 사동 구문의 유형에 대한 재고

정 환 승*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사동의 개념
 - 2.1 태국어 사동표현상의 특징
 - 2.2 사동성과 타동성
 - 2.3 사동성과 피동성
 - 2.4. 사동의 정의
3. 태국어 사동 구문의 사동성 문제
4. 맺는 글

1. 들어가는 글

태국어는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어와 달리 태(voice)에 대한 문법적인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태국어가 서구어와 달리 굴절어가 아니라 고립어이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행위자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발화를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하는 장면 의존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¹ 이 글에서는 태국어의 사동 표현이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사동의 의미에 대해 적합하고 합리적인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태국어에서 전형적인 사동으로 다루어온 **lǎw/haj/** 구문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 한국의국어대학교 태국어과

¹ 김종택(1982: 90-97) 송창선(1998: 20-28) 등에 의하면 국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태국어에서 통사적 사동을 실현시키는 *na/tham/* 구문과 *na/nai* /*thamhaj/* 구문의 사동성을 고찰하여 태국어의 전형적인 사동표현 구문을 밝혀내고자 한다.

2. 사동의 개념

2.1. 태국어 사동 표현상의 특징

태국어의 사동은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의 미상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왔다.²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사동을 논의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다음은 태국어에서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다.³

(1) ไป ดู หนังสือ
 paj du: mɔ:
 가다 보다 잡생이
 점보러 간다.

(2) ไป ตรวจ โรค
 paj truat ro:k
 가다 검사하다 병
 진찰 받으러 간다.

² 이러한 사동의 정의는 어라타이(๒๕๑๓/1970), Rasami(1976), 위파(๒๕๒๖/1983), Kingkarn(1986)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³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국제 음성기호는 간짜나(กาญจนา นาคสกุล/๒๕๒๔)의 표 기법에 따른 것이다.

- (3) ไป ตัด ผม
 paj tat phom
 가다 자르다 머리
 이발하러 간다.

위의 문장들은 형태상으로 보아 (S) + Vt + O의 형식을 갖춘 타동문이며 형식상으로 주동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문장들은 실제로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4) ให้ หมอ ดู โชคชะตา ให้ ตน
 háj mɔ: du: cho:kchata: háj ton
 [사동] 점쟁이 보다 운명 -주다 자신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보게 하다'

- (5) ให้ หมอฯ ตรวจ โรค ให้ ตน
 háj mɔ:ja: truat rok háj ton
 [사동] 의사 검사하다 병 -주다 자신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진찰하게 하다'

- (6) ให้ ช่าง ตัด ผม ให้ ตน
 háj cha:ŋ tat phom háj ton
 [사동] 기술자 자르다 머리 -주다 자신
 '이발사에게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한다'

문장 (1)-(3)과 같은 표현들이 태국어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위파 ๒๕๒๖/1983:6-7). 이는 태국어에서 사동 표현 중에서 화자와 청자가 상황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반쭌(๒๕๒๑/1978)은 이를 "서로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 연결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사동 표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굳어진 표현으로서 사동 표현으로 다루는 경우에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은 상황에 의존하여 사용하는 관용구로 처리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태국어의 언어 표현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주동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동의 표현을 즐겨 쓴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 (7) **ไห้** **ผม** **ช่วย** **ไหม**
 hâj phom chuaj maj
 [사동] 나 돕다 [의문]
 나로 하여금 도와 주게 하시겠습니까?

- (8) **คุณ** **จะ** **ไห้** **ผม** **มา** **กี่** **โมง**
 khun ca? hâj phom ma: ki: mo:ŋ
 당신 [미래] [사동] 나 오다 몇 시
 당신은 나를 몇시에 오게 하시겠습니까?

위의 문장 (7)은 '내가 도와 줄까?'라는 의미를 지닌 문장이며 문장 (8)은 '내가 몇시에 갈까?' 하는 의미로 사용된 문장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결정을 상대방, 즉 청자에게 유보하는 언어 습관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국인이 일상 생활에서 사동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까닭으로 사동 표현이 외국인을 위한 태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복잡한 통사적 분포를 갖는 **ไห้/hâj**가 어떠한 조건에서 사동 표현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은 태국어를 외국어로 익히는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2 사동성과 타동성

태국어는 언어적 특성상 어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접미사동이나 다른 형태적 사동이 없다. 태국어의 많은 타동사들이 두 가지의 사건을 기술할 수 있으며 그 때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타동사

는 사동사의 기능을 하게 되며 이를 어휘적 사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태국어에서 타동사가 사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타동사와 형태적 차이가 없으므로 사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태국어의 사동과 타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본래 '사동'과 '타동'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동'은 '주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타동'은 '자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어떤 행위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동사와 주동사의 개념이 성립하며 목적어 지배 여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사동'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동자(causer)가 피사동자(causee)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주동'은 동작주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섭, 이홍빈 1997: 208).

'타동'의 의미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서술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주어인 행위주로부터 목적어인 대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우형식 1990: 37-43). 이에 비해 '자동'은 동작이 미치는 대상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태국어에서 사동사와 타동사가 가지는 형태적 차이가 없으므로 의미 관계를 따져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타동사가 두 가지 사건을 기술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인과 관계를 갖게 되면 사동사로 분류한다.⁴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 (9) เขา เปิด ประตู
 khao pr:t pratu:
 그 열다 문
 그는 문을 열었다.

- (10) เขา อ่าน หนังสือ
 khao ?a:n najsu:
 그 읽다 책
 그는 책을 읽는다.

위의 문장 (9)에서 เปิด/pr:t /은 사동사이며 문장 (10)에서 อ่าน/?a:n/은 일

⁴ 이러한 개념 설정은 Lyons (1977: 484-494) 의 사동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송복승(1987), 이향천(1991) 등에 의해 국어에 적용된 바 있다.

반 타동사이다. 문장 (9)에서 피사동자 **ประตู**/pratu:/는 사동자 **เขา**/khao/의 행위 **เปิด**/pr:t/의해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바뀌었다. 반면에 문장 (10)의 **หนังสือ**/nagsu:/는 행동주 **เขา**/khao/의 행위 **อ่าน**?a:n/의 대상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행위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장 (9)는 다음과 같이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나 문장 (10)은 그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어 쓸 경우에 틀린 문장이 된다.

(9') **ประตู** **เปิด** (เอง)
 pratu: pr:t ?e:ŋ
 문 열다 스스로
 문이 (저절로) 열렸다.

(10') ***หนังสือ** **อ่าน**
 nagsu: ?a:n
 책 읽다
 책이 읽는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타동사와 사동사의 구분은 순전히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형태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2.3 사동성과 피동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동성은 어떤 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주동성과 대립하여 파악되는 개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동성은 어떤 행위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능동성과 대립하여 설정되는 개념이다.

사동문은 주동문과 피동문은 능동문과 각각 함의(entailment) 관계에 있으며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조건이 같다. 먼저 아래의 사동문을 보자.

- (11) a. สมชาย ท่า น้อง เสียใจ
 somchaj tham nɔ:ŋ siacaj
 솜차이 [사동] 동생 속상하다
 솜차이는 동생을 속상하게 만들었다.

- b. น้อง เสียใจ
 nɔ:ŋ siacaj
 동생은 상심했다.

위의 사동문 (11a)가 참이면 주동문 (11b)도 참이다. 이는 사동구문에서 기술되는 사건의 내용이 사동자의 시킴 행위에 따라 피사동자의 피사동행위가 반드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다음에는 피동문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 (12) a. หนู ถูก แมว กิน
 nu: thu:k mew kin
 쥐 당하다 고양이 먹다
 쥐가 고양이한테 먹혔다.

- b. แมว กิน หนู
 mew kin nu:
 고양이 먹다 쥐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위의 피동문 (12a)가 참이면 능동문 (12b)도 참이다. 또 문장 (12a)가 거짓이면 문장 (12b)도 역시 거짓이 된다. 또 능동문 (12b)가 참이면 피동문 (12a)도 참이다. 또 문장 (12b)가 거짓이면 문장 (12a)도 역시 거짓이 된다. 이처럼 피동문의 진리조건은 능동문의 진리조건과 일치하게 되어 동치

⁵ 태국어의 *nɔ*/tham/ 사동구문에서는 사동문과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의 의미를 함의하지만 *hǎi*/haj/에 의해 실현되는 사동 표현에서는 함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hǎi*/haj/ 구문의 경우에 사동문의 수행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사동과 피동은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법 범주로 분류된다. 그런데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상태적 피동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태국어에서 적지 않은 동사들이 중립 동사(middle verb)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과 상태성 피동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 중립 동사의 성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중립 동사란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대응관계를 갖는 동사의 한 유형이다. 국어의 중립 동사 구문을 연구한 연재훈(1989: 165-189)이 제시하는 중립 동사 구문의 판별 기준을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으로 나누어 태국어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3) 통사적 기준: 중립 동사는 자동사문 구조와 타동사문 구조에 형태 변화 없이 나타나며,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사문의 목적어 사이에 동일한 명사 분포를 갖는 동사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관계를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NP_i V NP_j \leftrightarrow NP_j V$$

태국어의 타동사문 중에서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4) a. แม่ ตำ พรึก
 me: tam phrik
 어머니 빵다 고추
 어머니가 고추를 빵는다.

- b. พรึก ตำ (ละเอียต)
 phrik tam laia:t
 고추 빵다 곱다
 고추가 (곱게) 빵아 졌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동문 (14a)에 대응하는 자동문 (14b)가 상대적 피동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의미적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중립 동사를 구별하는 의미적 기준을 살펴 보기로 하자. 연재훈 (1989)이 제시한 중립 동사를 판별하는 의미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5) 의미적 기준: 중립 동사의 타동사 문의 주어는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의 과정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사동자의 역할을 한다.

중립 동사의 의미적 기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중립 동사의 타동문을 *แม่/thamhâj/* 구문으로 환언(paraphrase)해보기로 한다. 이는 중립 동사의 타동사 문의 주어가 사동주의 역할을 한다면 목적어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므로 태국어의 사동구문인 *แม่/thamhâj/* 구문으로 환언(paraphrase)했을 때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 (14a)를 *แม่/thamhâj/* 구문으로 환언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4a') แม่ แม่/แม่ พรึก ตำ
 me: thamhâj phrik tam
 어머니 [사동] 고추 빨다
 어머니가 고추가 빨아지게 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상태성 피동이다. 여기서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어휘적 사동이 아닌 일반 타동문은 그와 대응하는 자동문이 상태성 피동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16) a. เขา อ่าน หนังสือ
 khao ?a:n narsuu:
 그 읽다 책
 그는 책을 읽는다.

b.	* หนังสือ	อ่าน
	nangsui:	?a:n
	책	읽다
	책이 읽힌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동 표현이 아닌 일반 타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중립 동사의 통사적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 또 문장 (16a)를 *ทำ/hamhâj* 구문으로 환언하여 의미적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된다.

(16a')	* เขา	ทำ	หนังสือ	อ่าน
	khao	thamhâj	nangsui:	?a:n:
	그	{사동}	책	읽다
	그는 책이 읽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타동사 구문의 동사는 대부분 중립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동문은 상태적 파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⁶ 이러한 중립 동사의 개념과 *ทำ/hamhâj* 구문으로 환언하는 방법은 위파(1983)가 제시하는 어휘사동의 판별기준보다 훨씬 명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된다. 위파의 판별법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목적어의 상태를 변화 시켰는가 하는 것인데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에는 의미상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2.4 사동의 정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태국어의 사동에 대한 개

⁶ 어휘적 사동을 실현하는 타동사 중에서 중립동사의 성격을 갖지 않는 동사는 그와 대응하는 별개의 동사가 있다. 예컨대 '먹이다'의 의미를 가진 *ป้อน/po:n/*은 어휘적 사동을 실현시키는 타동사이지만 중립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먹다'의 의미를 가진 *กิน/kin/*이라는 별개의 동사가 있다.

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따라서 사동 표현에 대한 기술에서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라야우빠깃(๒๕๓๓/1990)과 감차이 텅러(๒๕๔๐/1997)가 **ให้/hây** 구문을 사동문으로 분석하고 **ให้/hây**의 기능을 조동사로 규정한 것은 전통문법에 입각한 것으로 모국어 화자가 지닌 언어직관을 이용한 주관적 판단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Rasami(1976)는 태국어의 사동문이 **นำ/tham/**, **ให้/hây** 그리고 **นำให้/thamhây**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 후로 위파(๒๕๓๖/1983)와 Kingkarn (1986) 등에서도 태국어의 사동문이 **นำ/tham/**, **ให้/hây** 그리고 **นำให้/thamhây**에 의해 실현된다는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동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아니더라도 **ให้/hây**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한 어라타이(๒๕๑๓/1970), 반쭝(๒๕๒๘/1985) 등에서도 **ให้/hây**가 사동문을 실현시킨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근거로 태국어의 사동에 대해 기술하고 분석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태국어의 사동 표현을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올바른 논의와 분석을 하기 위해 사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2.4.1 사동의 구성 요소

앞의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동이 문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사동자: 제 1행위자(first agent) 또는 피사동 행위의 교사자(instigator)로 문장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사동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주어 역할을 한다. 태국어의 경우에는 통사적 사동이 실현되는 경우에 상위문의 주어가 된다.

2) 피사동자: 제 2행위자(second agent) 또는 피사동 행위의 수행자로 문장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피사동 행위를 나타내는 절의 주어가 된다. 태국어에서 통사적 사동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하위문의 주어로 나타나게 된다.

3) 피사동 사건(caused event): 사동자의 시키행위로 피사동자가 수행하는 행위가 된다. 문장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피사동자가 주어가 되는 절의 서술어가 나타내는 내용이다. 태국어에서 통사적 사동이 실현되는 경우에 하

위문의 술어가 나타내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동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 **น้อง ทำ กระเป๋า พาย**
 no:j tham krapao ha:j
 너이 [사동] 가방 사라지다
 너이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위의 문장에서 사동자는 **น้อง/no:j**이며 피사동자는 **กระเป๋า/krapao**이다. 그리고 피사동 사건은 **พาย/ha:j**가 서술하는 내용이 된다.⁷

2.4.2 사동의 성립 기준

사동이 문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동의 범주를 결정하는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태국어에는 어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형태적 기준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 본 항에서는 태국어의 사동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통사적 기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동'은 '주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사동이 구문으로 실현되려면 이에 대응되는 주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⁷ 구문론적으로 볼 때 사동자 **น้อง/no:j**는 상위문의 주어이며 사동 행위를 나타내는 **ทำ/tham**은 상위문의 술어이며 피사동자 **กระเป๋า/krapao**는 하위문의 주어 그리고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พาย/ha:j**는 하위문의 술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제 4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8) a. **น้อง** **ทำ** **ต้นไม้** **หัก**
 noŋ **tham** **tonma:j** **hak**
 동생 [사동] 나무 부러지다
 동생은 나무를 부러뜨렸다.

b. **ต้นไม้** **หัก**
 tonma:j **hak**
 나무 부러지다
 나무가 부러졌다.

위의 문장 (18a)에서 **น้อง/nɔŋ/**은 사동자로 상위문의 주어이며 **ทำ/tham/**은 사동 원인을 나타내는 상위문의 서술어이다. 그리고 **ต้นไม้/tonma:j/**는 피사동자로 하위문의 주어이며 **หัก/hak/**은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하위문의 서술어이다. 문장 (18b)는 문장 (18a)와 대응하는 주동문이다. 피사동자 **ต้นไม้/tonma:j/**가 주동문의 주어로 나타났으며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 **หัก/hak/**이 주동문의 술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형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NP_i V_i NP_j VP_j \leftrightarrow NP_j VP_j$$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하위문이 자동사 구문으로 나타나는 **ทำ/tham/**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사동문의 주어(NP_j)와 본동사(V_i)는 사라지게 되며 피사동자(NP_j)가 주동문의 주어로 오고 하위문의 술어(VP_j)가 주동문의 술어로 오게 된다.

(19) a. **ครู** **ให้** **นักเรียน** **ทำ** **การบ้าน**
 khru: **hâj** **nakrian** **tham** **ka:nba:n**
 선생님 [사동] 학생 하다 숙제
 선생님은 학생에게 숙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 b. **นักเรียน** **ทำ** **การบ้าน**
 nakrian tham ka:nba:n
 학생 하다 숙제
 학생이 숙제를 한다.

위의 문장 (19a)에서 **ครู/khru:/**는 사동자로 상위문의 주어이며 **ไฟ/hây/**는 사동 원인을 나타내는 상위문의 서술어이다. **นักเรียน/nakrian/**은 피사동자로 하위문의 주어이며 **ทำ/tham/**은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하위문의 술어이고 **การบ้าน/ka:nba:n/**은 그것의 목적어이다. 이를 대응하는 주동문으로 나타내게 되면 피사동자 **นักเรียน/nakrian/**이 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고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하위문의 술어 **ทำ/tham/**이 본동사로 오며 하위문의 목적어 **การบ้าน/ka:nba:n/**이 주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NP_i V_i NP_j VP_j \leftrightarrow NP_j VP_j$$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하위문이 타동사 구문으로 나타나는 **ไฟ/hây/**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사동문의 주어와 본동사(V_j)는 사라지게 되며 피사동자가 주동문의 주어로 오고 하위문의 술어(V_j)가 주동문의 술어로 오게 되며 하위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 (20) a. **เขา** **ทำให้** **งาน** **เสีย** **หมด**
 khao thamhâj ɲa:n sia mot
 그 [사동] 일 그르치다 모두
 그는 일을 모두 그르치게 만들었다.

- b. **งาน** **เสีย** **หมด**
 ɲa:n sia mot
 일 그르치다 모두
 일을 모두 그르쳤다.

위의 문장 (20a)에서 *เขว/khao/*는 사동자로 상위문의 주어이며 *ทำ/*
*thamhâj/*는 사동 원인을 나타내는 상위문의 서술어이다. 그리고 *งู/ɯa:n/*
은 피사동자로 하위문의 주어이며 *เลี้ยง/sia/*는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하위
문의 서술어이다. 문장 (20b)는 문장 (20a)를 이와 대응하는 주동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피사동자 *งู/ɯa:n/*이 주동문의 주어로 나타났으며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 *เลี้ยง/sia/*가 주동문의 술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형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NP_i V_i NP_j VP_j \leftrightarrow NP_j VP_j$$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하위문이 자동사 구문으로 나타나는
*ทำ/**thamhâj/*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사동문의 주어(NP_i)
와 본동사(V_i)는 사라지게 되며 피사동자(NP_j)가 주동문의 주어로 오고 하
위문의 술어(V_j)가 주동문의 술어로 오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통사적으로 그와
대응되는 주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주동문으로 나타내는 것
이 불가능하면 동일한 통사적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동이 성립
되지 않는다. 다음의 문장은 앞의 문장 (18a)와 통사적 분포는 같지만 주동
문으로 나타낼 수 없다.

(21) a. แดง ทำ ขนม กิน
 de:ŋ tham khanom kin
 댕 만들다 과자 먹다
 댕은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

b. * ขนม กิน
 khanom kin
 과자 먹다
 과자가 먹는다

따라서 위의 문장 (21a)는 사동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하는 주동문으로 나타
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 *ทำ/tham/*은 일반

동사로 '만들다'는 의미이며 목적어로 *khnom/khanom/*이라는 명사구를 취한다.

2) 의미적 기준

사동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찌하다' 또는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김형배 1997: 42). 이러한 사동문의 의미론적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위파(*Wipha*/1976)가 제시한 사동이 되기 위한 의미적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사동문은 사동행위와 피사동 행위의 두 가지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 b. 사동문이 기술하는 두 가지 사건은 의미상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파의 사동문 조건에서는 특별히 사동자나 피사동자에 대한 [+의도성]의 제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asami(1976)의 연구를 시점으로 태국어의 사동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Shibatani (1976)의 사동문 조건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Shibatani의 사동문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사동문의 두 가지 사건의 관계는 화자가 사동자의 사동 행위(causing event)가 있는 이후에 피사동 사건(caused event)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b. 사동문의 두 가지 사건의 관계는 화자가 피사동자의 피사동 행위가 전적으로 사동주의 사동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어의 사동문을 연구한 김정대(1988: 37-44)가 제시하는 사동문의 의미론적 조건에서는 [+의도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 a. 행위자 조건: 사동자와 피사동자는 [+행위자]이어야 하고, 특히 사동

자는 [+의도성]을 가져야 한다.

- b. 인과성 조건: 화자는 사동자의 사동 행위로 말미암아 피사동자의 피사동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 c. 수행성 조건: 화자는, 사동자의 사동 행위가 있는 이후에 피사동자의 피사동 행위가 반드시 수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Jackendoff (1994: 198-202)는 전형적인 사동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a. 의도성 조건: 사동자가 사동 사건을 수행하는데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 b. 직접성 조건: 사동자는 피사동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 c. 상태의 변화 조건: 사동 행위에 의한 상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Jackendoff는 사동문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의도성의 조건이나 직접성의 조건은 다소 어길 수 있지만 상태의 변화 조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동문의 의미론적 조건은 대개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위과의 경우에 [+의도성]이나 [+직접성]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Shibatani나 김정대의 경우에는 사동의 조건에 [+의도성]과 [+직접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제시하는 사동 조건들이 의미론적인 성격보다는 화용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어의 사동 표현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형태와 의미 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Jackendoff(1994: 198)가 제시한 사동의 의미적 조건 중에서 의도성 조건과 직접성 조건을 받아들여 이기로 한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변화의 조건 대신에 김정대에 의해 제안된 수행성 조건에서 화용론적 성격을 제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22) 사동문 조건

- a. 의도성 조건: 사동 행위를 수행하는 사동자는 사동 사건을 수행하는

- 데 있어서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 b. 직접성 조건: 사동자는 피사동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 c. 수행성 조건: 사동자의 사동 행위 이후에 피사동자의 피사동 행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4. 태국어 사동 구문의 사동성 문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동자와 피사동자 그리고 피사동 사건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사동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동이 되기 위한 통사적 조건과 의미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태국어에서 사동문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온 *tham/hâj/*, *tham/hâj/* 그리고 *tham/hâj/* 구문의 사동 표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동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4.1 통사적 기준

사동이 되기 위한 통사적 기준은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tham/hâj/*, *tham/hâj/* 그리고 *tham/hâj/* 구문에 통사적 기준을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1) *tham/hâj/* 구문의 주동문

- (23) a. *sákka* *tham* *kracok* *te:k*
 싹까 [사동] 거울 깨지다
 싹까는 거울을 깨뜨렸다.

- b. กระจก แตก
 kracok tɛ:k
 거울 깨지다
 거울이 깨졌다.

앞의 예문 (23a)는 통사적 기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으로 바꾸어 보면 (23b)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2) พ่อ/hâj/ 구문의 주동문

- (24) a. พ่อแม่ ให้ ลูก ไปเที่ยว
 pho:me: hâj lu:k pajthiaw
 부모 [사동] 자식 놀이 가다
 부모님은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 b. ลูก ไปเที่ยว
 lu:k pajthiaw
 자식 놀이 가다
 자녀가 놀러 간다.

위의 예문 (24a)는 통사적 기준에 따라 주동문으로 바꾸어보면 (24b)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3) ทำให้/thamhâj/ 구문의 주동문

- (25) a. เธอ ทำให้ ฉัน เสียใจ
 thɯ: thamhâj chan siacaj
 너 [사동] 나 속상하다
 너는 나를 속상하게 했다.

- b. ฉัน เสียใจ
 chan siacaj
 나 속상하다
 나는 속이 상했다.

위의 예문 (25a)는 통사적 기준에 따라 주동문으로 바꾸어보면 (25b)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ฉัน/tham/*, *ใจ/hâj/*, *ฉันใจ/thamhâj/* 구문은 사동문이 되기 위한 통사적 기준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있다.

4.2 의미적 기준

태국어에서 사동문이 되기 위한 의미적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동자가 의도를 가지고 사동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피사동 사건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동문과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합의 관계를 갖게 된다.⁸ 태국어의 *ฉัน/tham/*, *ใจ/hâj/*, *ฉันใจ/thamhâj/* 구문의 사동문이 되기 위한 의미적 조건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 a. 의도성 조건: 사동 행위를 수행하는 사동자는 사동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1) *ฉัน/tham/* 구문의 의도성 조건

- (26) ฉัน กระจก แตก
 sakka tham kracok te:k
 쌩까 [사동] 거울 깨지다
 쌩까는 거울을 깨지게 했다.

⁸ 사동문과 주동문의 합의 관계는 제 3장 3절의 사동성과 피동성 참조.

위의 예문에서 사동자는 *sǎkka/sakka/*이며 사동행위 *tham/tham/*을 수행하고 *kracok/kracok/*은 피사동자로서 피사동 사건 *te:k/te:k/*을 수행한다. 그러나 태국어에서 *tham/tham/* 사동구문에 의해 기술되는 사건의 내용은 우연이나 사고에 의해 일나는 사건만을 기술할 수 있다(Rasmi Vichit-Vadakan, 1976: 456-76). 이는 '일부러'의 의미를 지닌 부사구 *do:jtanjaj/do:jtanjaj/*를 삽입하여 확인할 수 있다.

(26')	<i>*sǎkka</i>	<i>tham</i>	<i>kracok</i>	<i>te:k</i>	<i>do:jtanjaj</i>
	sakka	tham	kracok	te:kdo:j	do:jtanjaj
	짜까	[사동]	거울	깨지다	일부러
	짜까는 일부러 거울을 깨뜨렸다.				

예문 (26')이 비문이 되므로 *tham/tham/* 구문은 사동문이 되기 위한 의미적 기준 중에서 의도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 *háj/háj/* 구문의 의도성 조건

(27)	<i>pho:me:</i>	<i>háj</i>	<i>lu:k</i>	<i>pajthiaw</i>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부모님은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위의 예문에서 *pho:me:/pho:me:/*는 사동자로 사동행위 *háj/háj/*를 수행하고 *lu:k/lu:k/*은 피사동자로서 피사동 사건 *pajthiaw/pajthiaw/*를 수행한다. 태국어에서 *háj/háj/* 구문에 의해 기술되는 사건의 내용은 사고나 우연에 의해 일나는 사건은 기술하지 못하고 오직 의도성을 가지고 행하는 사건의 내용만을 기술할 수 있다. 이는 '일부러'의 의미를 지닌 부사구 *do:jtanjaj/do:jtanjaj/*를 삽입하여 확인할 수 있다.

(27')	พ่อแม่	ให้	ลูก	ไปเที่ยว	โดยตั้งใจ
	pho:mɛ:	hâj	lu:k	pajthiaw	do:jtɔŋcaj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일부러
	부모님은 일부러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따라서 위의 예문 (27')이 정문이 되므로 **ให้/hâj/** 구문은 사동문이 되기 위한 의미적 기준 중에서 의도성 조건을 갖추고 있다.

3) **ทำให้/thamhâj/** 구문의 의도성 조건

(28)	เธอ	ทำให้	ฉัน	เสียใจ
	thɯ:	thamhâj	chan	siacaj
	너	[사동]	나	속상하다
	너는 나를 속상하게 했다.			

위의 예문에서 사동자는 **เธอ/thɯ:/**이며 사동행위 **ทำให้/thamhâj/** 를 수행하고 **ฉัน/chan/** 은 피사동자로서 피사동 사건 **เสียใจ/siacaj/** 를 수행한다. 태국어의 **ทำให้/thamhâj/**에 의해 기술되는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성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기술할 수 있다. 이는 '일부러'의 의미를 지닌 부사구 **โดยตั้งใจ/do:jtɔŋcaj/** 를 삽입하여 확인할 수 있다.

(28')	เธอ	ทำให้	ฉัน	เสียใจ	โดยตั้งใจ
	thɯ:	thamhâj	chan	siacaj	do:jtɔŋcaj
	너	[사동]	나	속상하다	일부러
	너는 일부러 나를 속상하게 했다.				

위의 예문 (28') 이 정문이 되므로 **ทำให้/thamhâj/** 구문은 사동문이 되기 위한 의미적 기준 중에서 의도성 조건을 갖추고 있다.

b. 직접성 조건: 사동자는 피사동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시험하고자 하는 사동문을 '직접' 또는 '손수'의 의미를 가진 **เอง/?e:ŋ/**을

삽입하여 다시 써보면 직접성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nǎ/tham/* 구문의 직접성 조건

(29) a. **สักกะ** **ท่า** **กระจก** **แตก**
 sakka tham kracok te:k
 싹까 [사동] 거울 깨지다
 싹까는 거울을 깨뜨렸다.

b. **สักกะ** **ท่า** **กระจก** **แตก** **เอง**
 sakka tham kracok te:k ?e:ŋ
 싹까 [사동] 거울 깨지다 손수
 싹까는 손수 거울을 깨뜨렸다.

위의 예문 (29b)에서 *เอง/?e:ŋ*은 *nǎ/tham/*만을 수식할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의미는 *สักกะ/sakka/*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거울이 깨지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만약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거울이 깨어지는 사건이라면 *น้ำไฟ/thamhâj/* 구문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

2) *ไฟ/hâj/* 구문의 직접성 조건

(30) a. **พ่อแม่** **ไฟ** **ลูก** **ไปเที่ยว**
 pho:me: hâj lu:k pajthiaw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부모님은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b. **พ่อแม่** **ไฟ** **ลูก** **ไปเที่ยว** **เอง**
 pho:me: hâj lu:k pajthiaw ?e:ŋ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손수
 부모님은 손수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위의 예문 (30b)에서 $\text{ເຈ}/?e:\eta/$ 은 $\text{ໄພ່}/\text{hâj}/$ 또는 $\text{ໄປເທື່ອ}/\text{pajthiaw}/$ 을 수식할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의미는 중의성을 지니게 된다. $\text{ເຈ}/?e:\eta/$ 이 $\text{ໄພ່}/\text{hâj}/$ 를 수식하는 경우에 부모의 허락이나 권유에 의해 자녀가 놀러 가는 것이며 $\text{ໄປເທື່ອ}/\text{pajthiaw}/$ 를 수식하는 경우에 보호자 없이 자녀들끼리 놀러 가게 한다는 의미를 기술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녀가 놀러 가는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기술하는 것으로 직접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⁹

3) $\text{ທ່າໄພ່}/\text{thamhâj}/$ 구문의 직접성 조건

(31) a. ເຫາ ທ່າໄພ່ ງານ ເສີຍ ທັດ
 khao thamhâj ɲa:n sia mot
 그 [사동] 일 그르치다 모두
 그는 일을 모두 그르치게 만들었다.

b. ເຫາ ທ່າໄພ່ ງານ ເສີຍ ທັດ ເຈ
 khao thamhâj ɲa:n sia mot ?e:η
 그 [사동] 일 그르치다 모두 손
 그는 손수 일을 모두 그르치게 만들었다.

위의 예문 (31b)에서 $\text{ເຈ}/?e:\eta/$ 은 $\text{ທ່າໄພ່}/\text{thamhâj}/$ 또는 $\text{ເສີຍ}/\text{sia}/$ 를 수식할 수 있으며 그가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모두를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text{ທ່າໄພ່}/\text{thamhâj}/$ 구문은 직접성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수행성 조건: 사동자의 사동 행위 이후에 피사동자의 피사동 행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⁹ 이러한 $\text{ໄພ່}/\text{hâj}/$ 구문의 간접성에 대해서는 Salee (1982: 111)이나 Kingkarn (1986: 38-40)등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다.

시험하고자 하는 사동문을 수행성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하여 모순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๓๓/te:/...๓๓/maj/** 구문으로 연결시켜 보기로 한다.

1) **๓๓/tham/** 구문의 수행성 조건

(32) a. **๓๓๓** **๓๓** **๓๓๓๓** **๓๓๓**
 sakka tham kracok te:k
 싹까 [사동] 거울 깨지다
 싹까는 거울을 깨뜨렸다.

b. ***๓๓๓** **๓๓๓๓** **๓๓** **๓๓๓**
 te: kracok maj te:k
 그러나 거울 아니 깨지다
 그러나 거울은 깨지지 않았다.

위의 **๓๓/tham/** 구문 (32a)에서 사동문의 피사동 사건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연결문 (32b)가 비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태국어의 **๓๓/tham/** 구문은 수행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๓๓/hâj/** 구문의 수행성 조건

(33) a. **๓๓๓๓** **๓๓** **๓๓** **๓๓๓๓๓**
 pho:mɛ: hâj lu:k pajthiaw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부모님은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b. **๓๓๓** **๓๓** **๓๓** **๓๓๓๓๓**
 te: lu:k maj pajthiaw
 그러나 자식 [부정] 놀러가다
 그러나 자식은 놀러 가지 않는다.

위의 **ไฟ/hây** 구문 (33a)는 사동문의 피사동 사건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동문과 역접의 관계를 갖는 연결문 (33b)가 정문으로 나타난다.

3) **น้ำไฟ/thamhâj**/ 구문의 수행성 조건

(34) a. **เธอ น้ำไฟ ฉัน เสียใจ**
 thr: thamhâj chan siacaj
 너 [사동] 나 속상하다
 너는 나를 속상하게 했다.

b. *แต่ ฉัน ไม่ เสียใจ
 te: chan maj siacaj
 그러나 나 [부정] 속상하다
 그러나 나는 속상하지 않았다.

위의 **น้ำไฟ/thamhâj**/ 구문 (34a)는 사동문의 피사동 사건이 반드시 수행되기 때문에 사동문과 역접의 관계를 갖는 연결문 (34b)가 비문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น้ำ/tham**/ 구문은 의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ไฟ/hây** 구문은 직접성 조건과 수행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น้ำไฟ/thamhâj**/ 구문만은 사동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동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태국어의 통사적 사동 구문의 의미적 기준 충족 여부를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의도성 조건	직접성 조건	수행성 조건
ົາ/tham/	X	○	○
ໄ້/hây/	○	X	X
ົາໄ້/thamhây/	○	○	○

태국어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동 구문으로 다루어 온 **ໄ້/hây/** 구문의 사동성을 재분석하여 본 결과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달리 **ໄ້/hây/** 구문은 사동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수행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시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킴'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ໄ້/hây/** 구문에 의해 나타나는 사동의 의미를 "의사사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¹⁰ 또한 **ົາ/tham/** 구문은 의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전형적인 사동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າໄ້/thamhây/** 구문은 세 가지의 사동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가장 전형적인 사동임을 알 수 있다.

5. 맺는 글

지금까지 살펴 본 태국어의 사동과 관련하여 태국어에 가지고 있는 사동 표현상의 특징과 사동과 타동 그리고 사동과 피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동에 대한 통사적 의미적 기준을 설정하여 사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태국어의 사동 유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은 특정한 동사가 지닌 의미 관계에 의해서 나

¹⁰ 의사 사동이란 형태는 사동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치 "걷다"라는 동사가 이동 동사처럼 보이지만 제자리에서 걷는 경우에 이동의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타나는 사동 의미이며 이러한 사동사는 대개가 중립동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통사적으로는 *n̄n/tham/* 구문과 *l̄w̄/hāj/* 구문 그리고 *n̄n̄l̄w̄/thamhāj/* 구문이 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형태로 사동 표현을 실현시키는 사동법이 성립된다. 이러한 통사적 사동구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n̄n/tham/* 구문은 의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전형적인 사동의 틀에서 벗어난다.

2) *l̄w̄/hāj/* 구문은 사동문 조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수행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의사 사동구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n̄n̄l̄w̄/thamhāj/* 구문은 의도성 조건 직접성 조건 그리고 수행성 조건등 세 가지의 사동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가장 전형적인 사동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태국어의 *l̄w̄/hāj/* 구문이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달리 전형적인 사동구문이 아님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태국어의 각 사동구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과 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김정대 (1988) "사동 논의에 대한 반성", *어문논집* 3, 경남대 국어교육학회.
- _____ (1989) "'-게 하다' 사동구문의 기저구조(1)" *경남 어문논집* 제 2집.
- 김종택 (1982) *국어 한용론*, 형설 출판사.
- 김형배 (1997) *국어의 사동사 연구*, 박이정.
- 송복승 (1987) "국어 사동사 파생과 사동문 생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5)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보고서.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 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한글* 203호 한글학회.
- _____ (1991) "The Interaction of the causative/passive and neutral-verb construction in Korean" *언어 연구* 제 3집 서울대학교 언어 연구회.
- _____ (1992) "Causative and Related Issues: A Typological Approach" *언어 연구* 제 6집 서울대학교 언어 연구회.
- 우형식 (1998) *국어 동사구문의 분석*, 태학사
- _____ (1990) "국어 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 임홍빈 (1997)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향천 (1991)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Jackendoff, Ray (1994) *Patterns in the Mind Language and Human Nature*. Harper Conllings Publishers.
- Kingkarn, Thepkanjana (198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Thai",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Lyons, John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sami, Vichit-Vadkan (1976) "The Concept of Inadvertence in Thai Periphrastic Causative Constructions" in Shibatani, Masayosi (ed.) *Syntax and semantics*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pp. 459-475.
- Salee, Sriphen (1982) *The Thai Verb Phrase*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Shibatani, Masayosi (197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 A Con-spectus" *Syntax and semantic*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pp. 1-39.

กาญจนา นาคสกุล. ระบบเสียง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๒๕๒๔

naksakun, ka:nca: .2525(1982). *raphopsiangpha:sa:thai*. [태국어 음성론]
krungthe:pamaha:nakho:n cula:longko:nmaha:withaya:lay

กำชัย ทองหล่อ,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รวมสาส์น. ๒๕๔๐

to:nglo: , kamchay . 2540(1997). *lakpha:sa:thai*. [태국어 문법]

krungthe:pamaha:nakho:n : ruamsa:t

บรรจบ พันธุเมธา. ลักษณะ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ฯ : โรงพิมพ์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มคำแหง. ๒๕๒๔

phantume:ta:, phancop. 2528(1985). *laksanapha:sa:thai*. [태국어 문법]

krungthe:p : ro:ngphimmaha:withaya:layra:mkha:mhæ:ng

พระยาอุปกิตศิลปสาร.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๑๑

phraya:upakitsilapa:sa:n. 2511(1968). *lakpha:sa:thai*. [태국어 문법]

krungthe:pamaha:nakho:n : thaiwathanapha:nit

วิภา วงศ์สันติวนิช. “คำกริยากริต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

ภาษาศาส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26

wongsantiwanit, wipha:. 2526(1983) “khamkriya:kari:tnaypha:sa:thai”.

withaya:niphonmaha:phanthit pha:kwicha:pha:sa:sa:t phanthitwithaya:lay
cula:longko:nmaha:withaya:lay

อรทัย เดชธำรง. “หน้าที่ของคำกริยาให้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

วิชา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13

the:tthamro:ng?orathay. 2513(1970) “na:thi:khamkriya hay naypha:sa:thai”.

withaya:niphonmaha:phanthit pha:kwicha:pha:sa:thai phanthitwithaya:lay
cula:longko:nmaha:withaya:lay

pp. 1-39.

กาญจนา นาคสกุล. ระบบเสียง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๒๕๒๔

naksakun, ka:ncana:2525(1982). *rhapsiayppha:sa:thai*. [태국어 음성론]
krungthe:pamaha:nakhɔ:n cula:lonkɔ:nmaha:withaya:lay

กำชัย ทองหล่อ,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รวมสาส์น. ๒๕๔๐

to:ngbɔ: , kamchay. 2540(1997). *lakpha:sa:thai*. [태국어 문법]

krungthe:pamaha:nakhɔ:n : ruamsa:t

บรรจบ พันธุเมธา. ลักษณะ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ฯ : โรงพิมพ์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มคำแหง. ๒๕๒๔

phantume:ta:, phancop.2528(1985). *laksanapha:sa:thai*. [태국어 문법]

krungthe:p : ro:nphimmaha:withaya:layra:mkha:mhæ:ŋ

พระยาอุปกิตศิลปสาร.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๑๑

phraya:upakitsilapa:sa:n.2511(1968). *lakpha:sa:thai*. [태국어 문법]

krungthe:pamaha:nakhɔ:n : thaiwathanapha:nit

วิภา วงศ์สันติวานิช. “คำกริยากิริต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

ภาษาศาส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26

wongsantiwanit, wipha:2526(1983) “khamkriya:kari:tnaypha:sa:thai”.

[태국어의 사동사에 관한 연구] withaya:niphonmaha:phanthit

pha:kwicha:pha:sa:sa:t phanthitwithaya:lay cula:lonkɔ:nmaha:withaya:lay

อรทัย เดชธำรง. “หน้าที่ของคำกริยาให้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

วิชา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13

the:tthamroŋ ʔorathay.2513(1970) “na:thi:khamkriya hay naypha:sa:thai”.

[태국어 동사 hay 의 기능에 관한 연구] withaya:niphonmaha:phanthit

pha:kwicha:pha:sa:thai phanthitwithaya:lay cula:lonkɔ:nmaha:withaya:lay

A Study of Causative Constructions in Thai

Jung Hwan-Seung

This paper attempts to offer a clear definition of causative by examining causative expressions in Thai, and to provid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m. In this study, the following new set of syntactic conditions and semantic conditions is set forth for the syntactic causative.

syntactic causation in Thai

- (1) syntactic conditions: transitive verbs that play the role of causative verbs must take a complement clause;
- (2) semantic conditions :
 - a. the causer performs the act deliberately, desiring the effect to take place.
 - b. the causer is directly involved in the effects taking place.
 - c. the effecting action of the causee should follow the causative action by the causer.

The existing literature has thus far analyzed Thai syntactic causative by categorizing into /tham/, /haj/ and /thamhaj/ constructions. However, it is

found that /tham/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 (2a), and /haj/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 (2c). In contrast, it can be seen that the /thamhaj/ constructions satisfies all conditions. Therefore, unlike the view held thus far, the meaning of the causative that appear in /haj/ constructions is categorized as "pseudo causative" because it does not meet which is essential for being a causative sentence. Also, the /tham/ constructions does not meet the condition (2a), thus it is not categorized as a typical causative. In contrast, /thamhaj/ constructions satisfies all three causative conditions, therefore it is found to be a typical causative.

<Key Words>

Thai, Syntax, Causative